

영혼을 살리는 참진리와 참사랑

-복음으로 여는 요한일서-

이사야 7:14, 요한일서 4:7-11

정윤돈 목사님

*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요일4:7-11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의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도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거룩한 성일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또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나의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절대계획과 또 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절대미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응답받아야 할 레마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I를 활용, 공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이 항상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왜 언어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없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의식주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으로 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그 답을 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나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한다. 이유가 뭐냐?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와 땅 끝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있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속으면 안된다. 하나님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컴퓨터와 AI를 발전시키시는 것은 선교와 전도의 큰 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원드린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일을 하다보면 먹는 것, 입는 것은 생각이 안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한다.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도전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축복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밋는 모든 땅의 흑암이 꺾이는 줄 믿기를 바란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다. 가뵐야 한다. 그래야지 전도도 만민도 문도 열린다. 시간표에 따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에 끌려 다니지 말고 주역, 서밋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현장에 가서 참진리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예수님이 참하나님이시고, 참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모른다. 사랑도 모른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나? 성경에 사랑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땀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게 모욕을 당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조건없는 아가페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게 참 진리 속에서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 중에 참진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없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계속 잘못한다.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길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 부리, 체질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고 그 저주에 매여서 끝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당대에 믿는 분들은 진짜 싸워야 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기 바란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 질병문제,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 바란다. 이 사실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에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간절해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온 고통과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재앙과 문제가 아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복음은 바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실 때는 굉장한 축복인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게 축복이 아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축복이다. 나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진리를 알아야 한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대상자도 사랑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로 변해야 한다. 이 사실을 믿고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혼 속에 영접한 사람은 참사랑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참진리는 참사랑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땅한 일인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교만한 것이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용서해 주셨다.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기를 바란다. 우리의 모든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원죄, 자범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진짜 감사로 믿어질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할 수 없다.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하였다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높은 지식과 영성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탄을 숭배하고, 명상을 통해 집신하고, 육신적으로는 타락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방법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었고, 창세기 6장에서 활동한 네

피랍이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이상하게 더 더럽게 타락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귀신들린 점쟁이에게 점을 치거나 깊은 명상을 통해 집신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탄의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프리메이스, 뉴에이지, 유대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참진리, 참사랑이다. 이 참진리와 참사랑이 그리스도인들과 후대들이 도전해야 할 평생의 목표인 '서밋진리'와 '서밋사랑'이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첫째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참진리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참진리자로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다. 참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문제를 해결하셨다. 참왕으로서 사탄, 마귀의 모든 걸 박살 내셨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오랫동안 꾀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참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초대교인들이 꾀박과 어려움을 당하니가 힘든 가운데 타성에 젖어 주일에 교회를 왔다갔다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근원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첫째로, 참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원래 인간을 영원하도록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불신하고 죄를 지어서 이 영원한 죽음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2) 두 번째로, 참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참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란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복음이며, 참진리이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산체사로 예배드리야 하는 것이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육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지 우리 죄가 대속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인터넷시대여도 우리의 몸으로, 생명으로 산체사 드리기를 축원드린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다.

(4)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참진리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하나님, 참사랑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5)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하나님이며, 영생이라는 것이 참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된다. 참진리가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고, 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에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참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나만 생각하고 나 잘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은 한계가 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축복받는 길이다. 나를 위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이다.

(2)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고 먹고 입는 걸 복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보다 먼저 생각하면 선악과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여러분은 원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되어진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

(3) 참사랑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4)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가질 때 지속하고 끝까지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악하고 부추해서 빨리 그런 체질로 거듭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깊이, 높이, 넓이가 계속 넓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서밋의 길이요, 하나님 자녀의 길이며 전도자의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진리와 참사랑으로 먼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참사랑과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받아 세계를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성탄음악행사를 통해서 새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